

성서한국

2014 여름 제60권 2호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성서 사업 보고

성서 속의 식물들

성경 속의 놀라운 이야기

선교지에서 온 소식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대한성서공회는 2014년 현재 세계 146개 성서공회들로 구성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 출판, 반포, 활용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성경 운동 네트워크로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을 위하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성경을 지원받은 콩고민주공화국 음반자 부족 어린이들



성서공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 성서공회들을 위하여 성경의 제작과 출판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사람들이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아프리카와 동남아, 중남미의 많은 성서공회들은 문맹퇴치를 위한 문자교실 프로그램의 운용과 에이즈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웃들이 성경을 통해서 글을 깨우치고 복음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제작 지원하고, 에이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에서 진행되는 문자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회원님들께서 매달 후원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귀중한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22



6



14



12

CONTENTS

- 2 여는 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 권의현 사장
- 4 성서 사업 보고 제121회 정기이사회 성서 사업 보고
- 6 One Bible, 지금 이곳에서는 상처로 얼룩진 짐바브웨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 10 성경 인사이드 권서의 발자취를 따라서 '권서 운동과 성경 보내기 운동'
중남미 국가 성서공회들의 이야기
- 14 2014년 해외 성경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70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16 성서 속의 식물들 석류나무
- 18 나를 변화시킨 이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 20 성경 속의 놀라운 이야기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하의 날들
- 22 선교지에서 온 소식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23 KBS 단신 제12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을 위한 세부어 성경 기증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2-2103-8861~3
· 편집문의 : 02-2103-8847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1~3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4년 6월 30일
· 인쇄인 : 김현수
· 인쇄처 : 삼립인쇄(주)
· 편집 : 강수현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찬성회원(후원,가정,평생회원) 회비 납납자 명단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유통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엘살바도르성서공회 파블로 곤잘레스 총무(왼쪽),
권의현 사장(오른쪽)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최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등 남미의 성서공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살바도르성서공회에서 현재 성서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엘살바도르성서공회는 상납금을 요구하는 범죄조직들의 협박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성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판매 담당 직원이 총으로 위협을 당하고 납치되어 폭행을 당하며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엘살바도르성서공회 직원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인 박해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진정한 사랑과 평안을 주는 일,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성서공회 사장

권의현



제121회 정기이사회

성서 사업 보고



권의현 사장

금년 상반기에는 국내 성서 출판 시장의 침체와 원화 강세,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기구 개편으로 인한 재정 지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성서를 활발하게 보급할 수 있었던 것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본 공회에서 재원 부족으로 성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서공회들에 성서를 무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하여 많은 성서공회들이 한국 교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각 성서공회들의 성경출판을 돕기 위해서 여러 언어의 성경조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무상으로 조판한 성서는 콰바어 신약(가나), 파피아멘투어 성경(네덜란드 안틸레스), 말라가시어 영어 대조성경(마다가스카르), 아르시 오로모어 신약(에티오피아), 바스키토어 신약(에티오피아), 킴어 성경(차드), 마르바어 신약(차드), 바사르어 성경(토고) 등 총 10개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조판한 성서는 총 30개이며, 현재 새롭게 진행 중인 조판 건수는 총 29개입니다.

또, 본 공회에서는 세계성서운동을 위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지원하는 재정적, 인적 지원과는 별도로, 금년에도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성서공회들에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아프리카 지역의 가나,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미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페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남태평양,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유럽 중동 지역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 총 15개 나라에 157,055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50여 개의 성서공회들로부터 성경 지원 요청을 받고, 무상으로 성경을 기증하고자 제작 중에 있거나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국성서공회와 협력하여, 자신의 언어로 처음 번역된 소수민족들의 성경인 세나어 신약(모잠비크)을 제작하여 기증하였으며, 크펠레어 성경(라이베리아)을 현재 제작하는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공회는 미얀마 5개 소수민족의 성경 번

역 사업을 계속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서 파오어 성경 번역은 본 공회 번역실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나가어 성경은 지난해 본 공회의 재정 지원으로 번역 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조판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본 공회에서 하와나가어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필리핀 해안 도시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본 공회에서는 세부어 성경 7,200부를 제작하여 필리핀성서공회에 기증하였습니다. 이 7,200부 중에서 4,300여 부는 월드디아코니아(이사장 오정현 목사)에서 2천만 원을 후원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본 공회에서는 90여 개 성서공회에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필요로 하는 성서공회들을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교회와 찬성회원들께서 보내주신 헌금은 지난해보다 약 1억 8천 1백여만 원이 증가한 10억 4천 7백여만 원이 답지하였습니다. 성경 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주시는 교회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 선교가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성서 보급에 대한 요청은 증대되고 있지만, 이 지역 성서공회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성경을 제때 보급하고

있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서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유럽 지역의 성서공회들이 본 공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교의 절대 우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급하고자 하는 중동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성서공회들이 본 공회로 성서 기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공회의 성서 기증 사업이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 형편이 허락되면 유럽 중동 지역으로까지 확대하여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성서공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이들이 요청하는 성경의 보급을 위하여 모금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보급에 대한 세계 각 성서공회들의 다양한 요청들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교회와 후원자를 찾아서 ‘성경 보내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 많은 이들이 ‘성경 보내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이블 어 먼쓰 클럽’ 후원회원들의 모집을 계속해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항상 성서사업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시는 교회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21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짐바브웨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짐바브웨성서공회의 클락슨 총무는 지난 해 11월 중순 방한했다. 당시 클락슨 총무는 짐바브웨성서공회가 당면한 재정적 그리고 운영상의 도전 과제와 성서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올해 2월 22일, 대한성서공회의 권익현 사장은 짐바브웨성서공회 클락슨 총무의 초청으로 짐바브웨를 방문했다.



본 공회가 짐바브웨에 기증한 쇼나어 성경

짐바브웨는 남아프리카에 자리 잡은 내륙국이며 남쪽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쪽으로 보츠와나, 북서쪽으로 잠비아, 동쪽으로 모잠비크와 접한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해 강수가 불규칙적이어서 가뭄이 잦다.

1970년대에는 소수 백인 지배에 대항하는 반군의 게릴라 투쟁이 심해져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1980년 4월 18일에는 다수인 아프리카인이 지배하는 짐바브웨로 독립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불안과 더불어 1997년 총파업, 2008년 전국적으로 퍼진 콜레라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 역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여 극도로 피폐한 상황이다. 전체 1,400만 명의 인구 중 83%가 2달러 미만의 소득층인 짐바브웨에서는 일반인조차 성서를 구입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다. 종교는 기독교·토착종교 혼합(50%), 기독교(25%), 토착종교(24%), 이슬람교 및 기타(1%)로 구성되어 있다.

짐바브웨에 기증한 성경

짐바브웨 사람들은 주요 언어로 쇼나(Shona), 은데벨레(Ndebele), 영어를 사용한다. 소수 민족의 언어는 치쿤다(Chikunda), 통가(Tonga), 총가(Tshonga) 등이 있다. 이중 치쿤다(Chikunda)는 잠베지 강을 따라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민족 언어이며, 짐바브웨에서 성경이 없는 소수 민족 언어 중



성경을 나르고 있는 짐바브웨 청소년들

하나이다. 치쿤다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짐바브웨성서공회는 치쿤다어 신약을 번역했다.

이후 2008년, 본 공회는 짐바브웨의 지원 요청을 받아 치쿤다어 신약 성서 4,100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접한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의 언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진 성경을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구약 번역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짐바브웨성서공회는 현재 각 소수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위한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보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본 공회는 더 많은 짐바브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2009년과 2010년에 짐바브웨의 공용어인 영어 성경을 각각 2,500부, 6,000부 기증하였고, 지난 5월, 약 9,500부의 쇼나어 성경을 제작하고 기증하여 짐바브웨성서공회의 사역을 돕고 있다.

“

현재 짐바브웨성서공회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읽기와 쓰기 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다.

”



성경을 읽고 있는 짐바브웨 어린이들

에이즈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이들의 성서사역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향후 상호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짐바브웨성서공회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클락슨 총무와 함께 ‘야나 차일드 케어 고아원’과 ‘알파 코티지 고아원’을 방문하였다.

‘야나 차일드 케어 고아원’은 에이즈로 부모를 잃었거나, 생이별을 하게 된 15세 이하의 아이들과 약 70여 명의 유아, 3명의 보모로 구성되어 지역 교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알파 코티지 고아원’ 역시 에이즈로 인해 고아가 된 100여 명의 아이들이 머무는 곳으로, 4명의 보모와 지역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감사 예배 후 각 고아원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그들의 이름이 쓰인 성경을 나누어 주는 작은 행사를 가졌다. ‘알파 코티지 고아원’의 아이들은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짐바브웨는 1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에이즈로 인해 가족을 잃은 과부와 고아들은 불안, 결핍, 두려움, 외로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전체 인구 중 52%에 달하는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아동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여자 아이의 경우, 성폭행으로 인해 에이즈 등 많은 질병에 감염될 위기에 처해있다. 에이즈, 계속되는 경제의 악순환, 어린이들을 향한 폭력으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지 상처로 얼룩져있다.

짐바브웨성서공회의 과제와 비전

짐바브웨성서공회는 사회 곳곳에 극심한 가난과 에이즈,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고아원 어린이들의 심리적 치료와 함께 ‘예수님은 이들이 겪은 아픔과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감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단체들이 있지만, 짐바브웨성서공회만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짐바브웨 사람 7명 중 1명이 HIV/에이즈로 인해 고통 받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책임으로 인한 또 다른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온전히 치료할 수 있다. 수많은 고통으로 지쳐 있는 짐바브웨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나아가는 성서공회의 움직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경과 따뜻한 관심이다.

짐바브웨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매월 만 원이면 매월 두 권의 성경을 짐바브웨에 보낼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 02-2103-8861~3)



짐바브웨 여인들과 어린이들



야나 차일드 케어 고아원 어린이들

권서의 발자취를 따라서

‘권서 운동과 성경 보내기 운동’

양재훈(협성대학교 교수)



동면감리교회 '확장교회학교', 1979년

1970년대 말, 내 아버지는 홍천 동면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 연세 높은 몇 분만 모여 예배드리던 교회에 젊은 목회자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워낙 시골이라 먼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었다.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킬로를 걸어 아침 일찍 교회 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엔 동면의 중학교 교감이셨던 춘천중앙감리교회 정길연 장로님과 아버지는 먼 동네 아이들을 찾아가 '확장교회학교'를 열었다.

아버지는 아코디언을, 장로님은 큰 북을 메고 동네를 다니며 아이들을 모았고 신기한 구경거리가 생긴 아이들은 아버지와 장로님의 뒤를 따랐다. 아이들이 동네 공터에 모이면 찬양과 율동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전해주곤 하셨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약장수였다.

동네방네 다니며 '약을 팔던' 아버지는 내게도 약을 파셨다. 아버지는 성서공회 마가복음 쪽복음을 다 읽으면 돈을 주신다고 했다. 성경을 다 읽자 아버지는 마태복음으로 또 제안하셨다. 제법 영악했던 나는 마태복음은 마가보다 더 길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우겼고, 아버지는 흔쾌히 그리 하셨다. 옛날 권서는 돈을 받고 복음서를 팔았는데, 아버지는 돈을 주고 복음서를 파는 어리숙한 약장수였다.

춘천으로 임지를 옮긴 아버지는 그곳에서도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엔 아파트 놀이터로 아코디언을 메고 '약을 팔리' 가셨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나는 아버지의

약장수 행각이 창피했다. 친구들이 아버지를 볼까 늘 걱정했고, 제발 아버지가 새약(신약)과 옛날 약(구약)을 돌리러 나가지 않도록 기도했다. 동네 놀이터에서 아코디언을 메고 아이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원망도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제 나 역시 그 새 약을 연구하고, 그 약을 팔 약장수를 훈련시키는 약장수가 되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창피하기만 했지, 아버지가 여기저기 떠돌며 전하던 이 새 약이야말로 말로 영혼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위대한 약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다. 하지만 돈을 주면서까지 성경을 읽게 하였던 아버지의 그 약 사랑 덕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영생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몇 달 전, 내가 가르치는 협성대학교 복음서학회 학생들과 성서공회를 찾았다. 그리고 이 땅에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권서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만일 전국 각처에 복음을 전하던 그 '약장수'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했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학생들과 두 가지 약속을 했다. 구원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Bible a Month Club'에 가입해 성경을 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권서가 되어서 복

음을 전하는 것이다. 가난한 학생들이라 크게는 못하지만 작더라도 꾸준히 후원하기로 했다.

매주 화요일 점심에 잠깐 짬을 내어 성서공회 쪽복음서로 캠퍼스 권서활동을 한다. 이 역시 큰 욕심을 내지 않는다. 매주 한 사람 당 두세 권으로 복음을 전하니 그리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서 권서 활동이 자연스러운 우리 일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당장 큰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다.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며, 우리는 그저 말씀을 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선교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는 분들에 비해 아주 보잘것없다. 그러나 비록 작아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작은 섬김은 그분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어 복음을 모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간다. 130년 전 신앙 선조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걸었던 그 길, 비록 지금은 아장아장 뒤따라가지만 언젠가 우리의 걸음은 좀 더 커질 것이고, 먼 훗날 후손들이 우리의 흔적을 따를 것이다.



협성대학교 복음서학회 캠퍼스 권서활동, 2014년 현재, 양재훈 교수(오른쪽)

중남미 국가 성서공회들의 이야기

본 공회는 지난 5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스페인어권 기독교 도서 전시회'에 참석했다. 그 일정 동안 본 공회는 에콰도르,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성서공회 총무들과 한자리에 모여 현재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에콰도르 프레리 게레로 총무

에콰도르성서공회는 4년 전부터 대한성서공회의 도움으로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지원해 주셨고 또한 성경을 반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사역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에콰도르성서공회가 있기까지 모든 사역에 힘써주신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역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사역은 아주 의미 있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에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긍휼함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화니 꼬시오 총무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성서공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은 자임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경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들어진 성경은 가장 품질이 좋아 볼리비아의 목회자들과 교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성서공회와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특권인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볼리비아는 한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에 성경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볼리비아

칠레 프란시스코 비에라 총무

대한성서공회와 더불어 모든 한국 성도님들과 교회의 꾸준한 후원, 그리고 특히 올해에 저희에게 기증해 주신 성경책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칠레성서공회에 있어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동시에 그 일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증해 주신 성경책으로 우리는 특별히 어린이들이 질적으로 더 나은 삶에 이르도록 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해주셔서 전문가들 특히 심리학자, 심리교육자, 사회복지사와 교사들이 함께 어린이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칠레성서공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칠레에서 가장 어렵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도 대한성서공회가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나눔의 일과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스타리카 마이로갈데 총무

대한성서공회가 코스타리카에 성경을 지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소중한 지원으로 우리의 사역이 더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서공회로서 저희의 사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 매일 진행되는 섬김의 프로젝트를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성서공회가 스페인어-한국 대조 성경을 출판한 것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 출판으로 인하여 중남미의 1,000여 명의 선교사들과 수 만 명의 한인 성도들, 특히 2세들 신앙이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역에 힘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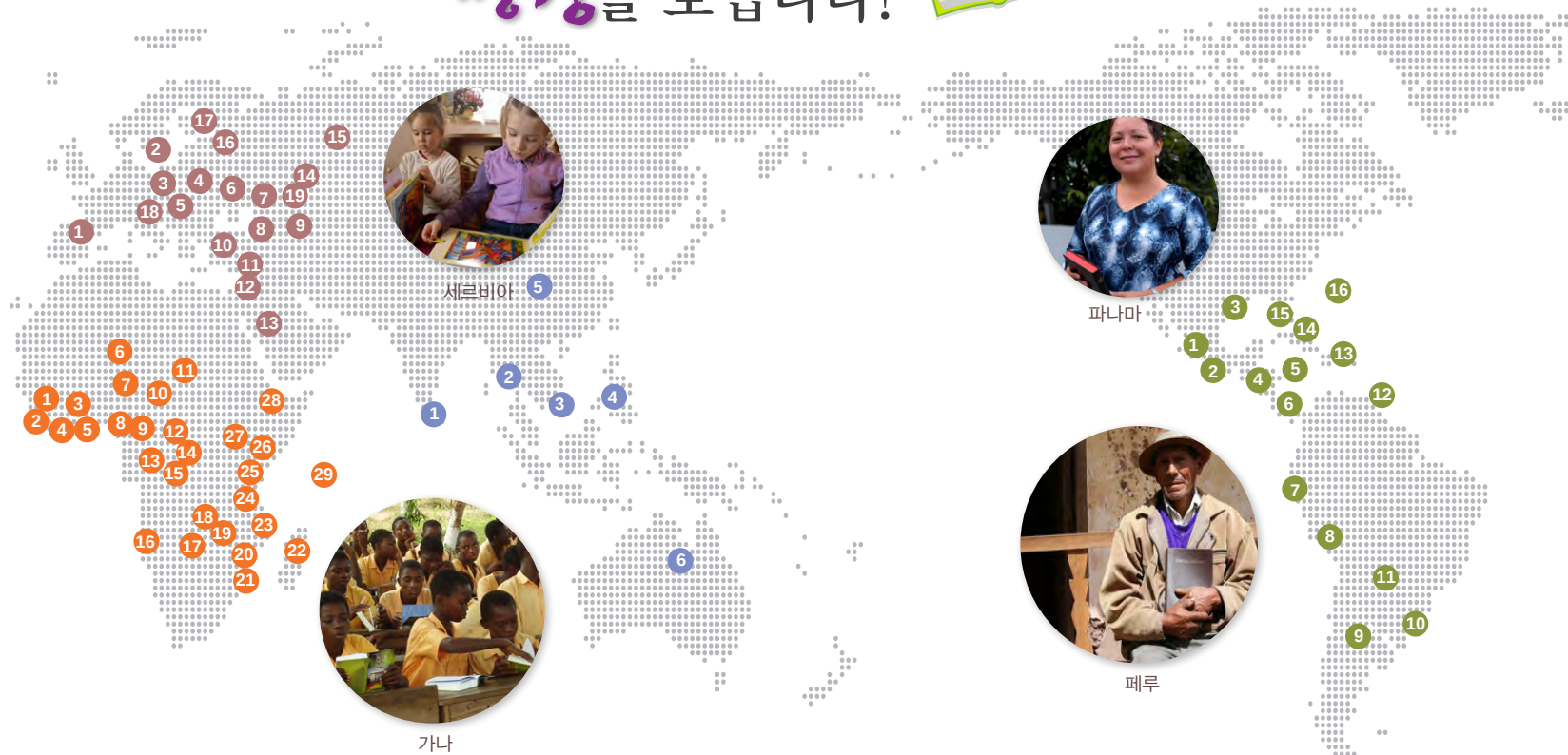


칠레



코스타리카

여러분의 후원으로 70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베닌



가봉



캄보디아



러시아

석류나무



▶ 관련구절

림몬(rimmon) 출 28:33~34; 39:24~26; 민 13:23; 20:5; 신 8:8; 삼상 14:2; 왕상 7:18, 20, 42; 왕하 25:17; 대하 3:16; 4:13; 아 4:3, 13; 6:7, 11; 7:12(13); 8:2; 렘 52:22~23; 욥 1:12; 학 2:19. 로이스코스(roiskos) 집회서 45:9

▶ 이름에 대한 논의

석류나무(*Punica granatum*)는 고대로부터 중동은 물론 이란과 북인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있다. 그 나무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건조한 지역들, 말레이 반도, 동인도 제도와 아프리카 열대지역에서 폭넓게 재배되고 있다. 석류나무는 현재 남유럽의 따뜻한 지역과, 북아프리카와 네팔에 이르는 아시아까지 넓은 지역에서 발견된다. 석류 열매의 모양은 기원전 1480년 경 이집트의 카르낙에 있는 바로의 신전에서 발견된다. 고전 라틴어에서 그 종의 이름은 말룸 푸니움(*malum punium*, 푸니의 사과) 혹은 말룸 그라나툼(*malum granatum*, 씨가 많은 사과)였다. 그러한 이름은 일반적인 영어 이름인 '파머그레니트(pomegranate)'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언어에도 (예를 들어, 독일어 그라네타펠<Granatapfel>, "씨가 있는 사과") 영향을 미쳤다. 영어 단어인 '파머그레니트(pomegranate)'도 라틴어 포뮴(pomum, 과일, 사과)에서 고대 프랑스어를 통해 나온 것이다; (프랑스어의 품<pomme>, "사과"와 비교해 보라). 아랍어 루만(rummân)은 포르투갈어 호마(romã)를 포함하여 몇몇 다른 언어에 영향을 미쳤다.

▶ 모양

석류나무는 약 3~5m 정도 자라는 작은 나무로서 진녹색의 좁은 잎과 가시가 있는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있다. 그 나무에는 아름다운 빨간 꽃이 있다. 열매는 오렌지보다 약간 작고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으며, 딱 채워진 주머니 속의 씨들을 얻으

려면 그 껍질을 잘라서 벌려야 한다.

각각의 씨는 즙이 있는 작은 과육으로 둘러싸여 있다. 열매의 끝부분은 꽃 모양으로 독특하게 되어 있다. 익으면서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단단한 껍질은 무두질하는데 쓰이며 약이나 잉크로 사용된다. 씨들은 종종 술로 만들었다. 석류나무는 200년까지 산다.

▶ 특별한 의미

석류나무는 신명기 8장 8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볼 수 있는 일곱 가지의 '특별한' 농산물 중 하나였다. 그 열매는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돌아온 것들 중 하나였다(민 13:23). 여호수아 15장 32절에서 그것은 장소 이름(림몬)이다. 아가서 4장 3절에서 왕의 신부는 석류의 반쪽 같은 뺨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석류의 빨간색을 언급하는 것이다.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석류 열매의 끝부분은 매력적인 장식품이 되었는데, 제사장이 입는 겹옷의 가장자리(출 28:33~34)와 성전의 기둥들과 기구(왕하 25:17)에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가장 오래된 공예품 중 하나는 막대기의 머리 부분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석류 모양의 조각이다.

요엘 선지자는 석류나무를 가뭄과 메뚜기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다섯 개의 나무들 중 하나로 언급했다(욥 1:12).

유대인 전통에서 석류나무는 의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석류 열매에는 613개의 씨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율법서에 포함된 613개의 명령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와 몇몇 다른 이유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력에 따른 새해 명절(로쉬 하샤나)에 석류를 먹는다. 또한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석류의 뾰족한 꽃받침은 왕관의 '모양'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전쟁 전에 석류씨를 씹으면 그들을 천하무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다. 코란에서는 석류를 세 번 언급하는데, 신이 만든 좋은 것에 대한 예로서 두 번, 낙원의 정원에서 볼 수 있는 과일로서 한 번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991년 구로공단에서의 사역으로 시작한 희년선교회는 국내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네팔 등 서남 아시아권에서 의료공제회, 무료 진료소, 인권상담소 등 각 분야에서 도움의 손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본 공회는 지난 4월 30일, 희년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현웅 선교사를 만나 이주민 사역을 하기까지 힘이 된 말씀을 들어보았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희년선교회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의료 시설들로 가득했다. 요일별 무료 진료항목을 적어놓은 칠판에서는 친절함이 묻어났다.

이주민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많은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강도 높은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병을 얻기도 하며,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신체 일부를 잃기도 하고,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드러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은 마땅치 않다.

“본국을 떠나 이주해 온 사람들 중에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박해로 인해 난민



본 공회가 기증한 우르두어 성경과 어린이 성경 동화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희년선교회의 사역 및 의료 시설과 현재 이주민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선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선교회 본부나 각 민족/언어별 공동체에 오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고 성경, 전도지 등을 통해 스스로 읽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사역자들이 공장이나 기숙사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접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있는 친구들의

소개로 교회에 발을 디게 되면서 성경을 읽게 되기도 한다.

이 선교사는 2001년부터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며,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평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 속을 썩이던 이주민이 불법체류단속에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보호소에서 마지막 면회 때에 그간의 생활을 반성하고 ‘본국에 돌아가서는 신앙생활 잘 하겠다’며 나이 든 어른이 회개의 눈물을 뚝뚝 흘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슬림 이주민들 중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지요.”

이 선교사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으로 ‘누가복음 14장 26~27절’ 말씀을 꼽으며 “힘이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예수님이 처음 저를 부르실 때 들려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27절이었습니다. 곧 맞이할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인 줄 알고 비장한 각오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선교사는 한 명 한 명의 이주민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날, 본 공회는 희년선교회에 우르두어 성경 300부, 세 가지의 어린이 성경 동화책 각각 30부, 전도지 30,000부를 전달하였다. 가득 쌓인 성경을 보며 이 선교사는 “꼭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사는 “단일 민족으로 오랜 세월 살아온 한국에 몰려오고 있는 많은 이주민들에 대해 국가가 이들을 맞이하고 더불어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교회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본국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본국 상황이 나아지기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전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하의 날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제나 휴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었다. 축제 때는 율법(성경의 첫 다섯 책)에 따라 희생 제물이나 예물을 드렸다. 다음은 이스라엘이 지킨 주요 축제와 휴일이다. (레위기 23장)

나팔 축제(로쉬 하샤나)

이 축제는 한 해의 첫 축제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기 위한 축제이다(레위기 23:23~25; 민수기 29:1~6). 나팔소리로 이 날의 시작을 알리고, 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다. 날짜는 티스리월(양력 9월 중순 이후)의 첫 날이다.

큰 용서의 날(속죄일 또는 욥 키푸르)

모든 축제일이 즐거운 축제는 아니다. 티스리월의 10일인 이 축제는 사람들이 금식(음식을 먹지 않음)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 슬픔을 표현하는 때이다. 성서시대에 사제는 자신의 죄에 대해 황소를 제물로 드렸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염소를 드렸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잘못을 대신 지고 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또 다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냈다. 이 염소는 희생염소(scapegoat)라고 부른다.

욥 키푸르 때 회당에서 기도하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모리스 고트립(Maurice Gottlieb), 1878



초막절(수쿰)

이 일주일간의 축제는 티스리월 15일에 시작된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길고 어려운 여정을 했다. 초막절은 그것을 기억하는 축제다(레위기 23:33~43). 수쿰은 초막(booth)을 뜻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동안 사람들은 임시 켄터 또는 초막에서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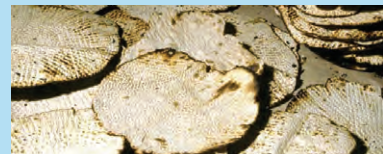
녕전 축제(하누카)

이 8일간의 축제는 구약의 외경 마카베오상에 나온 역사 사건을 기념한다. 유다 마카베오는 셀루키드제국(알렉산더 대왕 다음에)의 통치자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유다와 그의 군대는 안티오쿠스의 군대를 패배시키고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다. 그런 후 기원전 164년에 성전을 다시 봉헌했다. 하누카 또는 빛의 축제는 성전을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한다. 기슬르월(양력 11월 중순 이후)의 25일에 시작하는 하누카 동안 매일 밤 메노라의 초를 하나씩 켜다. 하누카의 불빛은 성전을 다시 봉헌했을 때 성전의 메노라에 하루 동안만 불을 켜 기름이 있었다는 것을 기념한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기름이 8일간 지속되었다.



유월절과 얇은 빵(무교병) 축제

이 축제는 일주일간 계속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에서 구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출애굽기 12장). 백성은 서둘러 이집트에서 도망해야 해서 반죽이 부풀어 오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얇은 빵'에 만족해야 했다.



추수절(샤부오트)

니산월(양력 3월 중순 이후) 15일에 시작하는 이 축제는 곡식 수확과 첫 열매들의 수확을 축하한다. 다른 축제와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땅을 주셔서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축제이다.



부림절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는 왕의 높은 관리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려는 음모를 막았다(에스더 9장). 그 후 특별한 축제일인 부림절을 아달월 13일로 정했다. 이 명절 때 하만타센(Hamantaschen)이라는 과자(아래에 만드는 법이 나옴)를 하만의 모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샤브(Shabbat)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현대 유대인들은 매해 지키는 명절 외에도 매주 제7일에 지키는 명절이다. 곧 안식일, 히브리어로 샤밧이다. 이 날은 쉬는 날이다. 샤밧이라는 말은 휴식이다(출애굽기 20:8~11; 31:12~17). 이것은 창세기 2:1~3의 창조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창세기 2:3)"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휴식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십계명 중의 하나이다 (출애굽기 20:8~10; 신명기 5:12~15).



알고
있었나요?

하누카의 메노라(Hanukkah menorah)는 초가 여덟 개가 아니라 아홉 개이다. 아홉 번째 초의 이름은 샤마쉬(shamash)이다. 하누카 축제 동안 매일 밤 이 초를 켜다. 샤마쉬는 다른 초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한다.

하만타센을 만드는 법

재료

쇼트닝 1컵
설탕 1½컵
달걀노른자 4개
밀가루 5컵
베이킹파우더 2큰술
베이킹소다 1큰술
우유 반컵

먼저 쇼트닝과 설탕을 섞어 크림을 만든다. 그리고 노른자를 넣고 잘 젓는다. 그런 다음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베이킹소다를 넣는다. 마른 재료와 우유를 번갈아 넣고 함께 섞는다. 반죽을 한 시간 동안 냉장시킨다. 반죽을 꺼내 0.8cm 두께로 민다. 10cm 반경의 동그라미로 자른다. 동그라미 한가운데에 잼이나 말린 자두 소를 작은 술 하나만큼 올려놓는다. 바깥에서 안으로 세 번 접어 삼각형으로 만든다. 저온 달걀을 곁에 바른다. 과자 굽는 판에 살짝 기름을 바르고 177°C에서 30분간 또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굽는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

지난 5월 22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로부터 나이지리아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지난 4월 14일,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무장테러집단 보코하람이 보르노주 치복시의 한 여학교를 급습하여 학교를 부수고 2백여 명의 여학생들을 납치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나이지리아에서는 끔찍한 테러가 계속적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납치된 여학생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을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여학생들의 무사귀환을 기다리며 'Bring Back Our Girls'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기독교단체들을 포함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Bring Back Our Girls'라고 적혀 있는 붉은 색 티셔츠와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성서공회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희망을 전하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아원, 정신병원, 학교 등 전국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성경을 나누어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연 165,000명의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요르바어, 하우사어, 이그보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나누어주기 위해 번역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성서공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되찾고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납치 사건과 테러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무자비한 폭력 사태가 멈추게 되고, 납치된 여학생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세요!



'Bring Back Our Girls'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제12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제121회 본 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본 공회 제121회 정기이사회가 2014년 5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 이어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 대표로 박종덕 사령관(구세군대한본영), 강일남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권희연 주교(대한성공회), 김동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엄현섭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양병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가 소개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김순권 목사, 문희수 목사, 이선균 목사, 김광년 장로가, 감사로는 최규완 장로가 선임되었다. 이어서 권의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교단 대표로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찬성회원 대표로 김동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 대표 이사를 사임하고 찬성회원 대표 이사로 선임)의 이사 선임이 있었다. 그리고 신 임원으로 이사장에 정하봉 목사, 부이사장에 이정익 목사, 서기에 이용호 목사, 회계에 손인웅 목사, 실행위원에 김순권 목사, 이선균 목사, 김현배 목사, 우창준 목사, 김동권 목사가 선임되었다. 이어 권의현 사장이 재선임되었다.



제121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에서 성서사업을 보고하는 권의현 사장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을 위한 세부어 성경 기증



기증한 필리핀 세부어 성경

지난 5월 15일 오후 3시, 본 공회 반포센터에서 월드디아코니아 임원들과 본 공회 모금사업부 장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전달할 세부어 성경 7,200부(미화 3만 불)의 기증식을 가졌다. 이 중에는 월드디아코니아의 후원(2천만 원)으로 기증하는 4,300여 부의 성경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성경 기증식에서 월드디아코니아 상임총무 최희범 목사는 상차 시 “단순히

성경책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였다.

이어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필리핀 세부어 성경을 제작하여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월드디아코니아에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기증하는 필리핀 세부어 성경을 통하여 삶의 터전과 희망을 잃은 필리핀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며, 더불어 필리핀성서공회에서 보내온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하였다.

이번에 기증되는 필리핀 세부어 성경 7,200부는 선편으로 운반되어 필리핀의 마닐라 항구에 2014년 5월 27일에 도착될 예정이다. 필리핀성서공회에서는 이 성경들을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반포할 것이다.



컨테이너 상차 시 기도

Bible a Month Club 회원 신청서

매달 한 권의 성경을...

성명	(남, 여)	교회명	교회직분
집전화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주소	☐ 소식지 이메일 요청		
약정금액	☐ 매월 5,000원(성경 1권)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 매월 10,000원(성경 2권)	은행명	예금주명
	☐ 매월 20,000원(성경 4권)	계좌번호	
	☐ 매월 원(성경 권) 5권 이상은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약정한 후원금이 매월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의 개인정보를 대한성서공회에서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성경을 전하는 행복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Bible A Month Club에 참여하시는 방법!

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 메 일** 카메라로 찍어서 biblef@bskorea.or.kr로 보내주세요.
- 팩 스** 02-2103-8896
- 우 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
-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를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한 권의 성경, 영혼을 살립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유럽 등 세계 곳곳에 계속되는 전쟁과
기난, 정치적, 종교적 박해,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구원과 치유' 입니다.

우리의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합니다.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성경 보내기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

10,000원을 헌금하시면,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구촌 이웃들에게 2권의 성경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성경 기증을 위한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대한성서공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하나은행 224-910049-47104

외환은행 630-008603-501

농협은행 355-0025-0990-53

수협은행 033-01-085327

우 제 국 011916-01-000076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성서공회

성경 지식을 활용하세요!